

##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실태와 의식변화 :

김정은 시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강동완 동아대학교

### 논문요약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남한 미디어는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 언론 보도 및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 내 외부정보 확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북한에서 외부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의 의식과 사회현상 더 나아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내 외부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의식변화 추이는 남한과 남한 사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세부항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에서의 남한 미디어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마음 연기’를 위한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주제어 :** 북한 내 한류, 외부정보, 자본주의날라리풍, 북한사회, 외래문화

\* 이 연구는 동아대학교 교내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 I. 서론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남한 미디어는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국내 언론 및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서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sup>1)</sup> 문제는 북한 내 외래정보 접촉에 따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다.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의 실태는 물론 이를 접한 북한 주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이다. 일부 북한 주민들은 한국 영상물 시청은 물론 한국산 제품 사용과 스타일까지 따라 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 풍’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 당국은 외부정보를 ‘제국주의사상문화 침투’로 간주하고 이를 봉쇄하기 위해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위로부터의 통제와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변화 욕구에 대한 충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는 향후 북한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사상성 강화와 내적 결속력을 위해 북한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학습 교양한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살아간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러한 남한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의 학습교양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에 대한 결집도를 높인다. 하지만 그러한 학습교양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을 때 받는 충격은 체제변화의 욕구로까지 이어진다. 굳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에 대해 가르치거나 주입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영상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체험하게 된다. 외부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경우 의식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이어진다.

1) 북한에서 한류 현상 및 미디어 수용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연구대상자와 미디어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내용의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박정란 2015) 참조.

한편, 폐쇄된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으로의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유통되면서 간부와 일반 주민의 연계된 조직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남한 영상물이라는 매개체가 북한 사회 현상은 물론 개인의 의식변화와 함께 북한체제라는 거시적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화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접근이 빠르게 증대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수, 보관, 공유, 처리 및 변환하는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에서 차지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도 주목할 요소다(김수암 2021).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 내 외부정보가 확산함에 따라 변화하는 북한 주민의 의식 및 북한 사회변화 정도를 살펴보려 한다. 김정은 시대로 규정하는 2012년 이후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남한 영상매체 시청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시청방법 및 매체 종류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의 유통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유통경로 및 방법 등을 살펴본다. 북한 지역에서 외부정보의 확산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와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물론 나아가 향후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남한 미디어 이용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및 북한 주민들의 ‘마음 얻기’를 위한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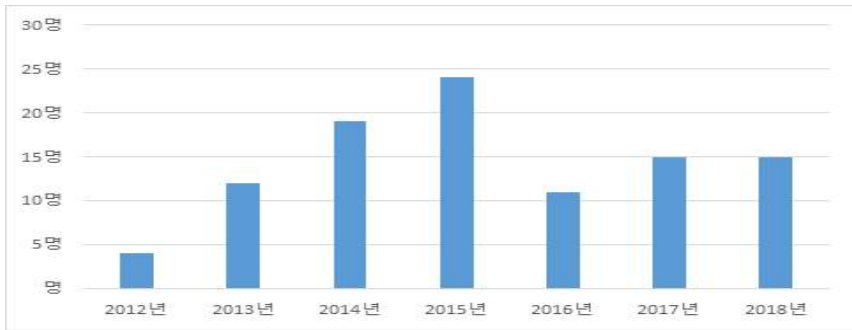
## II.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한류 확산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정은 시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차 면접대상으로 설정한 100명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을 질적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대와 지역을 고려한 연구대상의 표본을 확대하여 북한에서 외부정보가 확산하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남한 영상물을 시청 후 남한과 남한 사람,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세부항목별 의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별도로 진행했다. 남한 미디어 이용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는 남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북한 내부의 정보 통제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미디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비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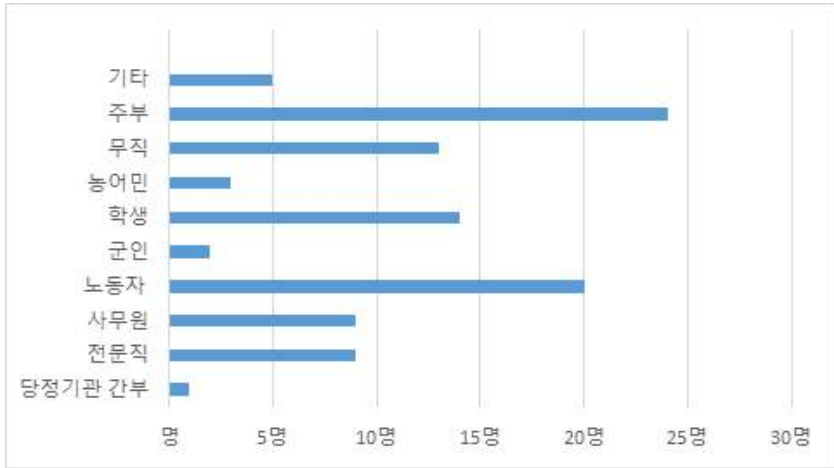
북한 주민 역시 동독 주민이 서독 TV 방송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문화, 가치관을 습득한 것처럼 남한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습득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간접 경험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주격 자아(I)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사회적으로 강조한 사회주의적 인간형 즉 정치 사상적으로 목적격 자아(Me)가 확대된 자아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안지호 외, 2017). 물론 한국 미디어가 지니는 폭력성, 선정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남한 미디어 수용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의식변화의 역기능을 고려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의 선전과 교양학습을 통해 형성된 왜곡된 이미지는 실제 남한 미디어를 통해 재확인되어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재연되는 남한의 '상징적 세계'는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별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100명 가운데 여성이 74명, 남성이 26명이었다. 이는 국내 입국 탈북민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참여비율이 고려되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살펴보면 100명 응답자 가운데 10대 2명, 20대 30명, 30대 12명, 40대 15명, 60대 21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60대가 21명으로 2순위였다. 또한 북한에 있을 때 거주지를 고려했다. 이는 북한 내 지역 중 남한 영상물이 어떤 지역에서 시청, 확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주요 지역을 보면 평양 4명, 양강도 34명, 평안남도 1명, 평안북도 7명, 함경남도 5명, 함경북도 41명, 황해남도 1명, 황해북도 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신 지역의 경우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각각 34명과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국내 입국 시기를 조사했다. 2012년 4명, 2013년 12명, 2014년 19명, 2015년 24명, 2016년 11명, 2017년 15명, 2018년 1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서 직업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주요 계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변수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정기관 간부 1명, 전문직 9명, 사무원 9명, 노동자 20명, 군인 2명, 학생 14명, 농어민 3명, 무직 13명, 주부 24명, 기타 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24명으로 응답한 주부가 1순위였으며 이어서 노동자가 2명으로 2순위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소학교 2명, 고등중학교 59명, 전문학교 25명, 대학교 12명, 박사원 2명 순이었다.



### Ⅲ.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촉 실태

#### 1.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방법

북한에서의 외부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청방법이나 확산경로 등을 다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는 북한 내부 모습은 우리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북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북한 사회를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더더욱 접근조차 어려운 내부를 직접 살다가 온 사람들로서 그들의 증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외에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과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라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sup>2)</sup>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2)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도 북한의 공식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외, 2015) 참조.

근간에는 외부정보의 엄격한 단속과 통제가 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결국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유형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사회주의 지상낙원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사상무장 되었다면 체제 내구성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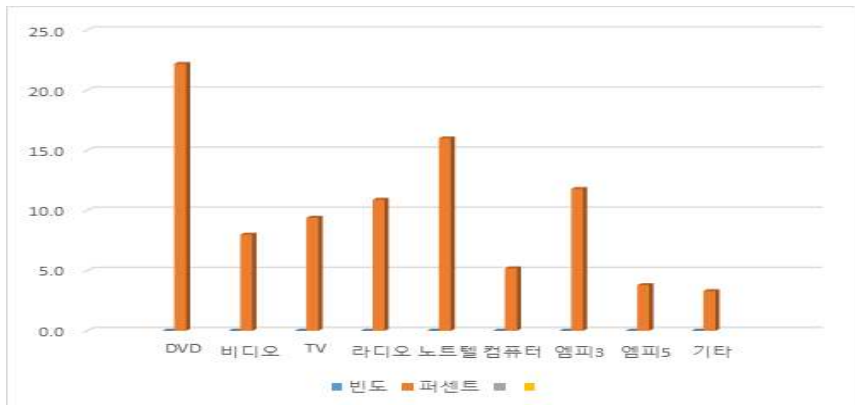
하지만 외부정보와 자본주의 문화를 엄격히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단속을 넘어 남한의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오락 등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CD(DVD), USB 등을 통해 북한 내부로 유입,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한번 유입된 남한 영상물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류를 접하면 접할수록 북한의 선전선동 및 교화 중심, 이데올로기 프로퍼갠더에 대한 저항감이 커질 수 있고 그만큼 북한 문화콘텐츠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국이 금기시하는 외부 문화콘텐츠가 꾸준히 주민들 사이에서 소비되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오랫동안 고착시켰다(송태은, 2018).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남한 영상물 시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통제와 단속,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엄격한 외부정보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 내부에서 시청, 퍼지는지 아닌지다. 이러한 시청형태를 알아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방법으로 유입, 퍼지는가의 문제를 넘어 북한 사회 내부의 인적 흐름과 정보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피해 사람들의 연계망이 형성된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다. 이는 결국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대상자 100명 가운데 북한에 있을 때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남한 영상물과 노래를 접했는지 질문했다. 복수응답을 고려했을 때 DVD플레이어가 47명(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트북이 34명(16.0%) 순이었다. 그 외에 비디오가 17명(8.0%), 라디오가 23명(10.9%), 텔레비전 수신이 20명(9.4%), 컴퓨터가 11명(5.2%), MP3가 25명(11.8%), MP5가 8명(3.8%) 순이었다.



## 2. 남한 영상물의 북한 내 확산 실태

북한 지역에서 남한 영상매체가 확산되는 경로는 어떻게 시청하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이러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판매 및 소비를 통한 유통방식



이다. 자본주의 양식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요한 정보원과 판매자가 존재하는 것도 특징이다. 주로 화교나 외화별이 일꾼, 상인 등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방식이다.

화교는 상대적으로 중국을 오가는 것이 일반 북한 주민과 비교할 때 자유롭다. 화교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한국 영상물이 시장에서 판매된다. 화교들은 남한 영상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단속을 대비해 직접 소유하지 않고 남한 영상매체를 대여해 준다. 대여는 단속이 되었을 경우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 불순녹화물을 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대신 누구의 소유인지 끝까지 그 소유를 묻는다.

두 번째 방식은 간부나 검열원이 단속을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되파는 경우다. 압수한 불순녹화물은 전량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간부들은 이를 뒤로 빼돌린다. 압수물품을 자신의 친지나 지인들과 함께 돌려보는 사례도 있다. 또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한 주민이 자신의 친지나 친구에게 권유하거나 같은 인민반원이 서로 돌려보는 예도 있다. 남한 영상매체 유통 및 시청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간부 계층까지 널리 확대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보다 간부들이 더 많이 시청한다고 증언했다. 단순 시청뿐만 아니라 특히 남한 영상물이 퍼지는데 간부들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외부정보를 불법으로 간주해 엄격히 단속하고 통제하는 북한 사회에서 간부들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유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 영상물 유통은 간부들과 상인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시청방법 및 매체 종류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

한 다양한 매체들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 빈부의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제품까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서 DVD가 퍼진 배경에는 일명 노트텔로 불리는 EVD플레이어의 유입 때문이다. 노트텔은 외형은 노트북과 같은 형태지만 일부 지역에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가능해 북한에서는 노트텔로 부른다. 노트텔은 외부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면 3시간 정도 시청이 가능한 휴대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기사정이 열악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노트텔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친다. 불순녹화물은 불법이라 반입이 안 되지만 노트텔 그 자체는 금지품목이 아니다. 더욱이 노트텔은 DVD뿐만 아니라 유에스비를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는 북한 당국으로서 더욱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디지털 매체가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의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산 저가 태블릿 PC가 인기를 끌고 있다. 노트텔과 달리 유에스비와 마이크로SD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확장성이 특징이다. 북한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런 제품이 사용될 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북한 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건 아니다. 북중국경지역 도시의 경우 북중 사이의 밀수나 교역할 수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분명 경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중접경 지역 도시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내륙 지역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빈부격차에 따라 영상매체의 접촉 빈도

나 대상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옴피오로 불리는 MP5 미디어 기기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의 USB보다 더 소형화된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품 자체가 소형화되었기 때문에 단속으로부터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북한 내 영상매체 확산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건 휴대전화다. 휴대전화의 용도가 단순히 전화 이외에 영상 시청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한다. 굳이 전화 기능이 없어도 공기계에 카드를 넣어서 영상을 시청하는 사례도 있다.

북한 내부 지역 간 확산경로도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전 시기에는 북중국경지역을 거점으로 주로 외부 영상물이 유입되었다. 중국과 가까운 연선지역에서 밀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변화의 양상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동력이 되는 장마당은 이른바 외부정보 확산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전까지 녹화기를 텔레비전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청했다면 지금은 소형화된 저장장치로 인해 휴대가 간편하다. 휴대성의 증대는 결국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은 시대 단속과 통제가 강화됐지만 동시에 영상매체의 변화와 확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 3. 북한 내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주요 콘텐츠와 의미

#### 가. 드라마와 영화 목록

북한에서 시청한 남한 영상물 가운데 제목과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질문했다.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은 봤지만, 정

확히 제목이나 당시의 느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자도 있었다. 응답자들의 경우 영화보다는 주로 드라마 시청목록이 많았다. 개인별 응답이기 때문에 드라마 목록이 중복되어도 각기 다른 느낌을 전하는 예도 있었다. 드라마와 영화의 특정 장면이 아닌 전반적으로 영상물을 시청한 후의 느낌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대다수 응답자가 남한과 남한 사람에게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외부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었던 북한 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은 결국 북한 당국의 선전과 학습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남한과 남한 사람에게 대한 인식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남한 영화와 드라마 시청 후 이러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내용이다. 사례 3, 7, 51, 66의 경우 가장 인상적인 드라마 목록으로 가을동화를 꼽았지만, 각각 서로 다른 느낌을 말했다. 사례 3은 “남한 사람들도 애증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남한 사람에게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례7은 “제도를 떠나 남녀 사랑은 똑같다”라며 남북한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다. 사례 51과 66은 동일하게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에 대한 느낌을 말했다.

한편, 사례 3, 7과 같이 가을동화를 보며 남한 사람에게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고 응답한 것과 같이 사례 4(천국의 계단), 사례5(풀하우스), 사례24(인어아가씨), 사례32(천국의 계단), 사례33(명량소녀성공기), 사례96(불꽃) 등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남한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16의

경우 드라마 어여쁜 당신을 시청한 후 “남한에서 신분과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사례 99 역시 영화 조폭마누라를 보고 나서 오히려 남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사례다.

사례	제목	느낌
1	올가미	남한도 북한도 시집살이는 같다는 생각
3	가을동화	남조선 사람들도 애증이 있다는 것에 놀람
4	천국의 계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신의 심장을 선뜻 내어준다는 것이 신기했다.
5	풀하우스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진짜 신기했다.
7	가을동화	제도를 떠나서 남녀의 사랑은 똑같다는 생각이 신기했다.
10	아름다운날	남한 배우들의 연기가 북한 배우들보다 실감 나게 잘한다고 느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점이 신기하게 느낌
11	파리의 연인	지하철이 깨끗하고 조용한 기차가 너무 타고 싶었다.
14	옥탑방고양이	사랑도 자유롭고 부지런히 일하면 수입이 있다는 사실
16	어여쁜 당신	남한에서는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17	풀하우스	송혜교와 비, 그 두 사람의 연애, 사랑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
24	인어아가씨	남한에도 정의감이 있고 정의를 지향하는구나.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
25	가을동화	동생병원에서 출생카드가 바뀌어 서로 다른 집에서 크다가 제집을 찾았으나 기르던 집 오빠가 끝까지 돌보는 장면이 눈물 나고 주위환경이 북과 남 차이점을 보게 되면서 슬펐다.
30	욕망의 바다	정말 신기했다. 씩어빠진 남조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은 정겹고 즐거워 보였다.
32	천국의 계단	남한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는 것에 감동
33	명랑소녀성공기	남한 사람들도 인간미가 있는구나 하고 느꼈다.
35	장군의 아들	조선 사람의 본태를 보여주려는 정신이 신기했다.
36	장군의 아들	조선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모습
37	천국의 계단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을 애타게 찾으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41	옥탑방고양이	남한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스스로가 돈을 벌고 또 일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50	올인	신기하지는 않고, 북한보다 의사표현을 더 잘했던 것 같다.

51	가을동화	남한드라마도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았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모습이 부러웠다.
52	약속	사랑을 포기하고 친구를 위해 자수하는 모습에서 조폭이지만 의리와 양심을 지키는 모습이 훈훈했다.
59	풀하우스	드라마에 나오는 정지훈의 차가운 매력과 따뜻한 사랑을 보며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남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60	상속자	고등학교 애들이 너무 세련됐다고 생각
65	왕가네 식구들	여자가 남자 부리는 장면이 신기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궁금. 한국 뉴스를 통해 북한의 사실을 알 수 있다.
66	가을동화	촬영 규모가 엄청나고 화질이 다르다. 배경과 의상 그리고 촬영 기술과 역사적 사실을 구현함에 감명받았다. 병원의 시설과 생활 수준 차이를 느끼며 언어사용이 친근했다.
74	조폭마누라	하고 싶은 일 하고 얘기하는 것 보고 놀랐다. 사랑이란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고 보여주는 게 신기했다.
81	꽃보다남자	한국남자는 다 그런 줄 알았다.
84	대장금	배우가 예뻐어요
87	약속	사람들이 멋있었다.
88	안개비	환상적이고, 예쁘다. 남자가 의지가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89	가슴달린남자	천국이구나 그때 받은 타격이 크기에 잊지 못하고 기억하게 되었다.
91	옥탑방 고양이	그 모습이 신기하고 북한에선 분명 못한다고 했는데 티비에선 잘 먹고 잘 사네? 회사도 되게 으리으리 하다 싶었다.
93	친구	액션영화라 북한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94	겨울연가	어쨌든 북한과는 다르니까 저런 과정을 겪어보고 싶다고 느꼈다.
95	가슴달린남자	신기하고 재밌었다. 우리랑 정신세계가 다르구나
96	불꽃	북한에서 가르쳐준 남조선의 공격성, 위협성에 대해 느끼지 못해서 좀 의문을 가짐
98	인어공주	너무나도 영화, 드라마를 본 인간세계가 고상하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여기 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
99	조폭마누라	처음에 솔직히 하는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겠더라. 새로운 모습이어서 당황스럽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배우들이 하고 나온 스타일은 멋있게 보였다

나. 남한 노래와 가수에 대한 기억

북한에 있을 때 직접 듣거나 즐겨 부른 남한 노래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제목과 가사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낌이 궁금

했다. 북한에서는 남한 영상물 보다 남한 노래가 이전부터 유통되었다. ‘중국 연변 가요’로 알고 불렀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게 한국 노래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영상물을 보는 것과 노래를 듣는 것이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외부정보가 제한된 북한사회에서는 남한 노래 한 곡의 가사와 곡조가 외부세계를 경험하는 간접적인 경험이 된다. 북한 노래가 대부분 사상과 정치선전을 담고 있지만, 남한 노래는 생활과 사랑을 주로 노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사상이 없고 인간의 생활감정을 담았다는 것이다.

	노래제목	노래를 부르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낌
1	사랑의 미로	딱딱하지 않고 생활적이어서 좋았다.
4	무조건	생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	무조건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7	총맞은 것처럼	사상이 아닌 생활감정이 좋았다.
10	사랑을 위하여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대하여 북한과 차별화된 느낌
12	바위섬	걱정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과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14	사랑의 미로	진실한 생활을 담은 것. 누구를 칭송하지 않는 것
19	남행열차	음악이 상쾌하고 사랑하다 헤어져도 잊지 않는 것이다.
20	사랑의 미로	이런 노래도 있냐고 음성과 가사가 독특했다.
22	바뀌	대단하고 쾌활하고 흥겹다. 이런것도 무대에서 다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
23	바위섬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어 좋았다.
28	당신이 최고야	사랑에 대한 감정을 노래해서 그리움으로 불렀다.
29	홍도야우지 마라	곡과 가사가 좋았고 이 노래를 들으면 왜서인지 마음이 울컥하면서 도 속이 시원했다.
30	개똥벌레	사상이 없어 보이고 생활적인 노래로 들리었다.
32	잘살거야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3	무조건	사랑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표현의 정확성
34	아파트	항상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다.
37	동지	한국 남녀의 사랑은 북한과 다른 것을 알았음.
38	사랑의 미로	사랑에 대한 슬픈 애정이 담겨있어 쓸쓸한 감정을 느낌
41	사랑의 미로	사랑이란 빛도 주고 상처도 받는다는 것을 가사로 보여준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다.
45	사랑의 미로	처음엔 중국 노래인 줄 알았고 한국에 와서야 한국 가수 노래라는 걸 알았다.

46	신사동 그 사람	정말 남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가 세뇌교육 받은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50	바위섬	가사 내용을 제외하고 멜로디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았음
52	천년지기	친구에 대한 이런 좋은 노래가 있어서 듣기에 참 좋았다.
53	혼자가 아닌 나	내가 비록 혼자일지라도 항상 나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힘을 냈던 것 같다.
59	친구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다투던 기억과 즐거웠던 시절을 다시 되새기 리 수 있는 가사여서 좋았다.
60	사랑했나봐	노래음이 감정적으로 절절하다는 느낌을 받음
61	산골소년의 슬픈사랑이야기	김씨 장군 찬양은 딱딱하고 싫는데 한국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65	아파트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려고 있나? 저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68	캔의 가라 가라	생활상을 노래에 표현했다. 북한은 한사람만을 위해 만들어 지는데, 남한은 자유가 많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어 편안하다.
69	빙고	정치적 노래가 아니고 일상생활 가사가 흥미롭다.
74	짹짹	국경도 넘는 사랑
78	어머나	자유롭고 살아가는 현실을 담은 노래다.
80	빙고	신나서 좋았다.
81	제이에게	재밌고 감정이 있다.
82	친구	친구의 우정을 노래해 좋았다.
86	사랑의 미로	연인 사이에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이 좋았다.
88	사랑을 할 거야	달콤하다.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되는구나
89	우연이	나이트클럽이 멋지다 틀었다 저게 천국이구나
90	아파트	늘상 고정틀에 박힌 노래가 아니라 자유를 느끼고 부르기 좋았다.
92	친구	북한에 있을땐 출처 불명의 노래였으나 유행하는 노래라 인상 깊었고 너무 좋았다. 사상이 전혀 없고 인간적인 노래
94	혼자가 아닌 나	여성으로서 사랑을 하고 싶던 나이라 너무 좋았고 설렘였다. 저런 사랑, 환경을 거쳐 보고 싶었다.
95	자기야	가사가 재미있다. 북한에서 정말 신기했다.
97	친구	중국에서 남한 노래라는 것을 알았고, 어릴적 일찍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가슴에 무언가 요동치는 기분이 들었다.
98	사랑의 미로	너무나도 정말 노래에 사상이 없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이야기 하는구나. 짝사랑이든, 남녀간의 사랑이든, 이별이든 그대로 그랬구나
99	봄날은 간다	내가 어릴 적 알던 노래들과 남한 노래들은 달라서 신기하고 가슴에 무엇인가 꿈틀거렸다.



한편,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영상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알게된 배우나 가수가 누구인지 질문했다. 빈도수가 아닌 전체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우명	송승헌, 원빈, 배용준, 송혜교, 비, 이병헌, 최지우, 장혁, 장나라, 김수현, 박신양, 최진실, 주진모, 이보영, 심은경, 최지우, 권상우, 정다빈, 김수현, 이민호, 이영애, 장동건, 이유리, 차인표(무순)
가수명	안재욱, 최진희, 주현미, 현철, 남진, 이미자, 배일호, 이효리, 태진아, 설운도, 윤아, 현아, 장윤정, 노영심, 나훈아, 이선희, 나미, 이승기, 코요테, 백지영, 임창정, 이승철, 우연이, 박상철, 싸이, 김연자, 이정현, 녹색지대, 서영은, 김원종, 김혜연, 김현정, 김청, 심수봉(무순)

#### IV. 세부항목에 대한 의식변화

##### 1. 남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후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선전과 학습을 통해 주입한 남한에 대한 인식이 영상물 시청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 남한을 “썩고 병든 자본주의”라는 시각으로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한다. 남북한 주민간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은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북한 당국이 교육한 내용과 남한 영상물을 접한 이후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주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 가. 긍정적 인식

먼저 북한 정권의 선전과 달리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하게 된 사례부터 살펴보자. 사례 A는 남한을 ‘개같은 세상이 아닌 사람 사는 세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하게 한 건 대통령

을 비난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또한 영화에 나오는 배경화면에서도 남한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개 같은 세상이라고 선전했으나 남한은 사람 사는 세상임을 알았다. 남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함. 방송을 듣고 북한에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함. 즉,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선전을 통해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느꼈습니다(사례 A)

북한에서는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이며, 선은 없고 악만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나 실지 그렇지 않았다. 영화에 나오는 주위환경을 보고 북과는 천지 차이며 남한 사람들이 다 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사례 B)

남한에 대한 인식이 바뀐 계기로 시위하는 장면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을 찍기도 했다. 강연 때 교육받았던 내용과는 너무도 달랐다고 사례 C는 증언한다.

남한 사회에 대해 자유도 없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이웃 간에 정이 없다고 들었으나 맞지 않았습니다. 시위하는 장면에서 옷차림과 도시를 보면서 거짓선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강연자료와 너무 달랐습니다(사례 C).

북한 당국의 사상교육과 달리 남한 사람들이 적대감이 없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발전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는 증언은 단순히 현실을 인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단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사례 E도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다른 남한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적대감이 없고 사상에 대한 강요도 없고 편한 인간 생활을 그린 점이 마음을 끌었고 발전한 현실을 무척 보고 싶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자꾸 마음이 끌렸다. 남조선은 나쁘다는 선전만 들었는데 화면을 통해 실상을 알게 되고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사례 D).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선전을 들었고 실제로는 제대군인들에게 많이 들었다. 남한에는 깡통을 차고 다닌다는 소문과 달리 잘 사는 나라임을 느꼈다(사례 E).

남한 사람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자신들의 체제와 비교하는 예도 있었다. 사례 F는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남한을 ‘황금만능의 세상’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목표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특정한 체제와 국가에 연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도 없고 오직 황금만능의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랑도 있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목표를 이룬 청년들이 매우 부러웠다. 남한의 영상물을 보고 한국의 발전상과 자유로운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떠한 체제나 국가에 연연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사례 F).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 중에는 특정한 소재를 통해 남한의 체제를 인식하기도 했다. 사례 G는 사례 F와 같이 체제의 다른

을 인식한 경우다. 그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한다.

착취하는 곳이라 배웠는데 달랐다. 올가미를 보면서 회사생활과 사는 방식이 잘 사는 것을 봤다.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것을 보고 일하면 돈을 주는 자유가 많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사례 G).

#### 나. 부정적 인식

앞서 긍정적인 인식과 달리 남한 영상물을 보고 남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사례도 있다. 북한 당국의 선전한 내용대로 입증하는 경우다. 사례 H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로 알았는데 노숙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증언한다. 그러한 생각은 북한 당국이 선전한 대로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었다.

다 잘 살고 행복한 줄 알았다. 남한에도 노숙자가 있는 줄 몰랐다. 미제의 식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다 미제 것이라고 여겼다(사례 H).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된 것과 달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장하는 예도 있다. 북한이 선전한 것보다 훨씬 더 남한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놀랐지만, 그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서 선전하는 것보다 훨씬 남한이 잘사는 것에 놀랐지만 왠지 살기 힘들 것 같았다. 영화 장면 중 부모도 없이 고생하다 나중에 성공은 하지만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다(사례 I).

## 2.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앞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보면 기존에 북한에서 교육받은 현실과 자신이 직접 본 영상물 속 남한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남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을 보면서 잘살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장면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 소감은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남한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가 분명 아니었다.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 사적 소유가 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자신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과 소유로 인해 사적인 영역이 부족했다. 또한 남한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라 교육받았지만, 오히려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정이 많은 인간으로 보였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을 보여주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발전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의 영상물을 보면 사람들은 일할 때는 일하고 그 수입으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모습은 곧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과 남한 사람에 대한 기존의 인식변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의식변화로까지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사례 C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개인

의 자유가 존중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무엇보다 통제와 억압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통제와 억압 속에서 살기보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고 싶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경제가 더 발전했고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주의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주의는 개인이 전체를 위해 복종하나 자유, 민주주의는 자신이 중심이며 의사를 표출하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사례 C).

사례 D가 인식한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고 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곳이었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삶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북한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곳인데 민주주의는 각자 생각을 모을 수 있어서 선호했다. 영화를 보면 남한 사람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할 말은 하고 살았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고, 자유롭게 행동하는게 부러웠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국가가 아닌 자기계획대로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사례 D).

북한에서도 경제적 운영방식이 달라지면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으로 인해 누구나 아무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례 G는 개인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잘 살 수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라고 인식했다. 그러면서 밀수를 비롯해 장사를 통제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을 이

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내가 잘살아야 나라가 잘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는데 북한에선 밀수를 하거나 다른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싶었다. 내 나라에서 내 능력껏 먹고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지상낙원이 아닌가 싶었다. 남한에 꼭 가고 싶었다(사례 G).

외부정보를 접했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는 건 아닌 사례도 물론 있다. 사례 H는 북한 당국의 선전대로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의 표본이라 여겼고 학습받은 내용 외에 다른 건 상상조차 못 했다고 한다.

생각을 해보는 것조차 두려워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지상낙원이며 사회주의의 표본이며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어렵게 살 거로 생각했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했기에 별생각이 없었다(사례 H).

### 3.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앞서 남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변화를 겪을까 궁금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것과 남한 영상물에서 본 내용의 괴리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체제내구력과 연계될 수 있다.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속한 북한체제를 비교하게 된다.

북한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하게 된 건 자본주의 방식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나서다. 북한체제와 전혀 다른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활하며 당과 대중보다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는 체제에 대해 동경한다. 사례 B에게 주체사상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처럼 보였다.

김씨 일가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북한 뉴스는 찬양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직 주체사상만을 믿고 주체의 요구대로 생활하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자본주의 생활방식, 특히 사랑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되고 당과 대중보다는 가족의 사랑, 연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사례 B).

사례 B가 북한체제에 대해 가진 불만은 개방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정권 붕괴에 대한 바람까지 담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도 이른 시일 안에 개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주의로 재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남한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니까 (사례 B).

사례 D 역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북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일상적인 삶의 제약 때문이었다. 사례 F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입으면 왜 안되는가 불만을 느꼈다. 단지 옷 입는 자유를 제약한 것인데 그 제약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었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는 천국’이라는 생각까지 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자유가 없다는 게 불만이었다. 특히, 20대에 머리 모양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국가가 있기는 할까 싶었다(사례 D).

앞서 본 사례처럼 일상생활의 제약은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복종이 강요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최고지도자 욕을 했다는 점은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단서가 된다.

김정은 “저 새끼...” 하며 막 욕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욕을 했다. 김정은을 위해서 군대 갈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다 등의 반발심이 생겼다(사례 F).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자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예도 있었다. 사례 G는 정권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그동안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스스로에 대한 적개심이 더 들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 실제랑 맞지 않았다. 영화, 드라마를 보며 적개심을 가졌지만, 김일성을 나쁘다고 비판할 생각은 없었다. 당에는 충실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제지하는지는 솔직히 몰랐다. 자꾸 막으니까 반발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전쟁 또한 우리가 일으켰다는 게 느껴졌다. 솔직히 남조선 영상물엔 북한 김부자를 비난하는 듯한 얘기는 없는데 왜 저러나 싶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당에 충성하던 내가 적개심을 가졌다(사례 G).

한편,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하기보다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겨우 드라마 정도 보고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걸 본다고 그 정권에 대한 부패성에 대한 차이가 없다. 그 영화 내용으로 인해 반감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사실상 피부에 느껴지는 건 생활, 삶에 대한 개척이지 북한 사회가 나쁘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저 잘살고 싶다는 욕구만 있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북한 당국의 삶을 비난할 생각은 없었다(사례 E).

실제로 생각이 조금 들었다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치라고 여겼다. 정치적인 생각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관심이었다. 앞서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은 알았지만 그런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던 사례 I는 정권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건 사치라고 여겼다.

정권에 대한 불만까지는 없었다. 당장 삶에 찌들어 원망, 미움이라는 감정을 잊고 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런 감정들은 사치라고 느꼈다(사례 I).

#### 4. 인권에 대한 생각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상물을 보며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경험했다. 인권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저런 삶이구나’라는 생각이면 충분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한 영상물에서 보이는 시위장면에서 ‘사람들의 옷과 신발을 보며 저렇게 잘사는데 도대체 왜 시위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사례 A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초보

적인 인권도 없는 북한 현실에 환멸을 느꼈다”라고 한다. 그가 말한 인권의 개념은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있는 것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남한 영상물을 보면서 인권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인권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사례 C 역시 인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아닐까? 무엇이 먹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먹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인권이지요. 대한민국은 참 자유주의 나라구나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사례 C).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경찰들이 여성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것이 자주 증언에 드러난다. 또한 경찰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인권이라 생각했다. 북한에서는 의심만 되어도 구속하는데 남한의 법체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북한은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며 경찰들은 여성에게 막 말한다. 남한은 경찰이 막말하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다. 드라마에서 보면 혐의가 있어도 증거가 있어야 잡아가고 감옥도 여건이 괜찮은 걸 보고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게 부러웠다(사례 E).

하지만 대부분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어릴 때 수령 숭배사상과 당에 대한 충성밖에 모르고 컸다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는데 크면서 조금씩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인권이 뭔지 모르겠더라. 당연하게 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개돼지만도 못하게 산다.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허용이 안 된다(사례 D).

북한에서는 인권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냥 이론적으로 사람의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라 알았다.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도 모른다. 그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체험해보지 못했던 터라 북한에선 인권 자체를 몰랐다(사례 F).

남북한의 생활상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감옥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건 바로 인권의 개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권은 몰랐다. 남한은 뭔가 마음먹으면 하는 곳이구나. 우리는 감옥 생활이구나 싶었다. 북한은 큰 교도소라는 같증이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줬던 게 인권이 아닐까?(사례 G)

사례 H는 ‘인권은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전쟁이라고 나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래서 전쟁이 곧 자신에게는 어쩌면 인권과 같다는 말이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개념이 북한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보여준다.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도 못하고 단지 내 생각은 자유가 허용되는 것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마음 드

는 노래를 듣지도 못하는 벌레같이 살아가는 것은 주민이다. 자유는 가슴에 억울함이 없이 무엇이랴도 해보는 것 그것이 인권이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난 그때 내 인권은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전쟁이라도 나서 내 한과 답답함을 풀길 원했다.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지상주의 낙원은 행복하지 않았다(사례 H).

한편, 사례 H는 남한 드라마를 보며 말투에서 인권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한다. 남한 영상물에서 보이는 억양과 말투가 곧 인권이라는 증언도 있다. 남북한이 언어가 같다고 말하지만 북한 당국은 ‘남조선식 말투 사용’을 법으로 제정해 금지할 만큼 차이가 있다.

드라마를 보는데 말투마다 “우리 딸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라는 표현을 쓰는게 가슴에 와 닿았다. 관계 중심적이라고 할까. 언어적인 자유가 있는 곳이구나. 남한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사례 H).

## V. 결론

외부로부터 철저히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외부정보로 대변되는 남한 영상물의 시청과 확산은 북한 사회변화의 주요한 동인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명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 외부정보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동시에 남한 영상물의 확산과 유통 역시 근절되지 않고 더욱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장마당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방식이지만 간부와 상인의 결탁으로 오히려 단속과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부정보를 접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인해 사상성이 약화

하는 것을 우려해 엄격히 통제하려 한다. 그런데도 북한 내에서 외부정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인기리에 거래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지역 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북중국경에 있는 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등의 중소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북중간 밀수가 남한 영상물 유통의 주요한 연계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지역 분포에서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이 가장 많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만큼 외부세계와 인접한 곳일수록 외부정보의 유통과 이에 따른 의식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있을 때 시청하거나 들었던 남한 영상물이나 노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목록과 느낌을 조사했다. 물론 과거의 기억과 또 한국에서 경험한 사실이 상호 혼재되어 나타날 한계는 분명 있지만,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통한 외래문화의 접촉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한편과 노래 한곡이 주는 의미와 그에 따른 의식변화는 정치적 의미를 더했다. 영상물에서 보이는 남한의 실제 모습과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의 차이는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내적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 고민과 갈등은 더욱 많은 남한 영상물의 확산을 추동했고,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남한 출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는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랑

과 실생활을 담은 노래 그 자체가 바로 인권이었다고 말한다.

남한 영상물의 북한 내 확산은 사회현상에 대한 변화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의식변화의 과정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정치사상으로 남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교육하는데, 외부정보를 접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의식변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건 향후 남북한 통합은 물론 북한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북한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각기 다름을 인지하며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을 직접 학습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는 결코 북한 주민들의 교육이나 학습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다. 그런데도 남한 영상물의 내용을 보면서 분명 자신들이 살아가는 체제의 생활과 비교하며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남한 영상물의 북한 내 확산이 북한 사회 변화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동완. “국내 입국 탈북 여성의 경계 짓기: 직행과 중국행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1권 1호, 2019.
-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 강동완 외.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 평화』 제7집 1호, 2015.
- “북한주민들의 중국에서 남한 미디어 이용 실태 연구,” 『통일연구』 제19권 1호, 2015.
- “북한의 한류 연구: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 2014.
- 김기덕 외. “남북의 정서적 연대와 통일문화컨텐츠 개발방향.” 『통일인문학』. 제77호, 2019.
-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송태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모색: 한반도 한류의 창출과 북한국제평판의 쇄신.” 『정치정보연구』. 제21권 3호, 2018.
- 안지호 외. “자본주의 미디어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동독과 북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7권 2호, 2017.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2011.
- 정상돈, “동독 내 서독정보 유입의 과정과 방법,” 『국방정책연구』. 제33권 4호, 2018.
- 조정아 외. 『새로운 시대의 탄생: 북한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투고일 : 2021년 3월 13일 . 심사일 : 2021년 3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4월 12일

\* 강동완은 성균관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박사를 받고, 현재 동아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 <평양 882.6km>,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통일의 눈으로 백령도를 다시보다>,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그들만의 평양>, <김정은의 음악정치>, <평양 밖 북조선> 등을 저술했다.

<Abstract>

##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s'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and Changes in Their Perception

Kang, Dong Wan  
(Dong-A University)

South Korean media have flowed into North Korea in earnest since the mid-2000s and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indicators of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As the fact that South Korean videos are watched even in the closed society of North Korea was made public through media reports and the testimony of North Korean defectors, relevant studies are being conducted more actively. The question is how to interpret the spread of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It is a question about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s who have accesse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and social phenomena as well as how it affects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is regard, this study performed a surve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Pyongyang during the Kim Jung-un era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and changes in their perception.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ere explored in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South Korea and South Koreans,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study aims to use the results as a mechanism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South Korean culture and perspective changes in North Koreans in the future.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use of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this study also explores ways to utilize media to “win over North Koreans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Keywords** : Korean Wave in North Korea, outside information, capitalist delinquent style, North Korean society, foreign culture